

# 고흥쌀 제주시에서 시식 품평회...제주도 시장 공략 이어가

### 고흥산 친환경 건나물과의 콜라보 '나물밥'도 인기몰이 "상생 교류 협력 지속 성과 낼 수 있도록 지역민 관심 바라"

고흥군은 6일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광장에서 '고흥쌀 시식 품평회'를 열고 고흥쌀 제주도 판로 확대를 위한 공략을 이어갔다. 이번 품평회는 '고흥-제주 교류협력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2일 고흥군과 제주시, 흥양농협과 제주시농협 간 체결된 농수특산물 판로 확대 등을 위한 업무협약의 결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서귀포시농협 하나로마트에 이어 제주도에서 열린 두 번째 고흥쌀 시식 품평

회다. 겨울철임에도 다양한 소비자층과 더 많은 제주시민을 공략하기 위해 수요 변경장터가 열리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 야외 광장에서 실시해 호응이 높았다. 특히, 고품질 간척지 쌀과 고흥산 친환경 건나물을 함께 넣어 갖 지어낸 나물밥은 그 고소한 풍미에 산뜻한 건감미까지 더해져 품평회장을 찾은 제주도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군 관계자는 "쌀 뿐만 아니라 고흥쌀과 콜라보레이션을 이룬 친환경 나물 등 품질 좋은 여러 고흥산 농수특산물이 제주도에서 사랑받을 수 있도록 더욱 알리고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흥군과 제주도의 상생 교류 협력이 지속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양 지역민들께서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도에 출하되는 고흥쌀은 제주시·서귀포시농협 하나로마트 등에서 4kg부터 5kg, 10kg, 20kg의 다양한 포장단위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 11월 30일까지 올해 총판매량은 39,034포대 460톤에 이르고 있다.

고흥=기동취재본부



### 보성군, 12일 청년공동체 활성화 성과 공유회 개최

#### 제암산자연휴양림서 올 한해 성과 뽐내

보성군은 오는 12일 제암산자연휴양림 숲속 교육관에서 '청년공동체 활성화 성과 공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성과 공유회는 1부 성과 공유, 2부 기념식, 3부 역량 강화 순으로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공동체·동아리 성과 공유 및 사업 공적 발표(PT), △축하공연, △우수 공동체 시상, △청년정책 유공 표창, △청년협의체 위촉식, △역량 강화 강의, △지역 만찬 등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행안부 1팀, 전남형 5팀, 모닥모닥 동아리 5팀의 평가 자료와 발표 결과를 바탕으로 △자기 개발 및 성장, △지역 공헌, △성과 달성 등의 평가 항목을 심사해 공동체 우수팀, 동아리 우수팀 각각 1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선정된 공동체 우수팀은 오는 20일에 개최되는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성과 공유회'에서 보성군을 대표하는 발표 자격이 부여된다.

올해 제2기 청년협의체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 구성된 제3기 청년협의체 위촉식과 제2기 우수회원 유공 표창 수여식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보성군 관계자는 "보성 청년들이 지역사회의 성장을 이끌어가는 주역으로서 올 한해 활동한 성과를 선보이는 뜻깊은 행사이다."라며 "많은 분들이 성과 공유회에 오셔서 청년들과 공동체 역량을 강화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성=김덕순기자

## 노관규 순천시장, 국회 찾아가 내년 국비 확보 '젠걸음'

### 서삼석 예결위원장·강훈식 예결위 간사 만나 사업비 반영 요청

노관규 순천시장이 2024년 정부예산 증액 사업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4일 국회를 찾았다.

순천시에 따르면 노 시장은 서삼석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장과 강훈식 예결위 간사 등과 면담하고 2024년 국회 증액 사업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국비 증액의 필요성·시급성을 강조했다.

노 시장은 순천시의 6개 현안 사업에 대한 정부안 반영 291억 원, 국회 증액 169억 9000만 원 등 총 460억 9000만 원을 건의했다.

주요 사업은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 5억 원 ▲순천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 220억 원 ▲순천 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 조성 193억 원 ▲순천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 38억 원 ▲순천만갯벌 블루카본 강화 사업 2억 8000만 원 ▲순천만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 2억 1000만 원 등이다.

노 시장은 박람회로 완성된 정원문화를 정원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해 '정원문화산업 핵심거점 육성사업'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정원 소재 수출 등을 위한 정원문화산업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비 5억 원을 증액 요청했다.

또 수도권 기업 유치 위한 '순천 해룡산단 내부 간선도로 개설'사업 관련, 기존 반영된 정부 예산안 8억 원에 국회 30억 원을 추가로 건의했다.

순천만습지 사업으로는 3건을 증액 요구했다. '순천동천하구 습지 복원 사업'은 반영된 정부 예산안 90억 원에 국회 130억 원 증액을 건의했다. '순천만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과 '순천만 거차해역 갯벌생태계 복원 사업'에 각각 국비 2억 8000만 원, 2억 1000만 원을 증액 요청했다.

지역균형 발전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순천 애니메이션산업 클러스터 조성'의 당위성을 설명하며 2024년 정부안에 확정된 국비 193억 원이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관련 사업인 ▲K-문화콘텐츠산업 육성(2000억 원) ▲문화콘텐츠산업 인력양성 프로젝트(21억 5000만 원)에 대한 적극적인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순천시의 미래 중심 신성장동력 사업



노관규 순천시장이 서삼석 예결위원장과 면담하고 있다.

인·K-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은 노 시장이 직접 건의하여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 받은 바 있다.

노관규 시장은 "국회 최종 의결 전까지 주요 현안 사업 전액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승호기자

## 여수시, 국토부 대중교통 시책평가 전국 1위

### 인구 30만 이하 '대상' 전남도 유일

여수시가 국토교통부 '2023년도 대중교통 시책평가'에서 전국 1위 기관으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책 수립 유도를 위해 2년마다 '대중교통 시책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전국 161개 특별·광역시·군을 인구 규모 및 도시철도 유무에 따라 5개 그룹으로 나눠 대중교통 시설·서비스, 행정 및 정책지원, 이용자 만족도 등에 대해 평가했다.

여수시는 순천, 광양 등 인구 30만 이하 그룹에 편성돼 36개 시군과 경합 결과, 전국 1위 인 대상을 차지하며 국토교통부장관 기관 표

창을 받았다. 전남도에서는 여수시가 유일한 수상 지자체다.

시는 지난 2007년 평가 도입(2년 주기) 이래 2020·2022년 실적 최우수 기관 선정을 포함,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초로 6회 연속 수상했다.

여수시는 지난 2년간 ▲시내버스 노선 개편 ▲도시형 교통 모델도입 ▲친환경 저상버스 도입, 바우처 콜택시 및 장애인 콜택시 운영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및 자동 무인 방역기 설치 등 시민 중심의 다양한 대중교통 시책을 추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여수=기동취재본부



## 2023년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 깨끗한 전남 만들기 함께해요



### 사용금지 품 목



1회용 종이컵



1회용 빨대·젓는 막대



1회용 우산 비닐



1회용 쇼핑백